

중국경제현안

브리핑

제02-19호 / 2002년 3월 19일

금년도 중국 豫算案의 내용과 특징 : 사상 최대의 赤字財政 편성

1. 개요

□ 금년도 중국정부의 예산안을 상화이청(項懷誠) 재정부장이 3월 6일 제9기 전인 대 제5차 회의에 제출하였음.

- 금년 예산안은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재정으로 편성되었으며, 중앙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3,000억 원을 초과함(약 375억 달러).

○ 주요 재정투자사업은 도시지역의 사회안전망 건설, 정부기관 및 기업의 임금인상, 서부개발, 농촌인프라 건설 등임.

- 중국의 금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에 비해 19% 늘어난 것이며, IMF 권고치인 對GDP 비중 3.0%를 넘는 규모임.

□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배경은 첫째, 민간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, 둘째, 실업문제 및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임.

2. 200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

□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자 예산을 편성함.

- 금년도 중앙 및 지방의 재정수입은 1조 8,015억 원(작년도 집행액대비 10% 증가), 지출은 2조 1,113억 원(동 12% 증가), 중앙재정적자는 3,098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제출됨.

○ 금년도 중앙재정적자 규모는 작년에 비해 19% 정도 증가

○ 중앙재정은 수입이 1조 646억 원, 지출 1조 3,744억 원으로 편성

- 중국은 금년에도 1,500억 원 규모의 장기 건설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,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(2,581억 원) 등을 포함할 경우, 총 국채발행액은 5,929억 원에 달함.

○ 금년도 국채발행액은 작년에(5,100억 원) 비해 16% 증가함.

○ 금번의 건설 국채는 서부대개발, 중점기업의 기술개조, ‘南水北引’ 사업, 북경지역 수자원 보호, 농촌기초시설 확충 등에 투입될 계획임.

□ 민간소비 증진을 위해 도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함.

- 중앙의 사회보장성 지출을 작년 대비 28% 늘어난 860억 원으로 배정

-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과 기업의 임금을 적정수준 인상하여, 민간소비를 자극

□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및 환경보호에 재정 투입을 증대시킴.

- ▲농촌의 송전망과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, ▲조세개혁 시범지역 확대, ▲황무

지 및 한계농지를 環境林으로 전환

- ☐ 교육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 분야에 대한 예산을 각각 전년비 18%, 9% 인상함.
- ☐ 전투력 증가와 군인 급여 인상을 위해 국방비를 전년비 17.6% 증액한 1,660억 원(200억 달러)으로 책정함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☐ 금년도 중국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임.
 - 중국 정부는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해 왔으나, 금년의 경우 재정자금 투입의 목표가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.
 - 즉, 과거에는 SOC 건설 등 공공사업에 정부재정의 상당부분이 투입되었으나, 금년에는 도시지역의 사회안정망 확보(28% 증가) 등 민간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늘어났음.
- ☐ 이처럼 중국이 재정투자의 목표와 항목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.
 - 첫째, 중국 지도부가 내수위주형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정부부문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임.
 - 둘째, 실업문제 및 사회안정과 관련되어 있는바,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98년 이후 대량의 정리해고자(下岡)가 발생, 이 중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인력이 작년부터 공식 실업자로 집계되고 있음.

- o 그 결과 지난해 실업률이 2000년 대비 0.5%포인트 증가한 3.6%를 기록했고, 금년도 실업률은 작년 대비 0.9%포인트 늘어난 4.5%로 예상되고 있음.
- 특히 금년 가을 제 16기 당대회에서 중국의 최고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 바, 실업문제와 도시빈민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정 유지가 중국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.(***)